금융위원회	보 도 해 명				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5.3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51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병 칠 부국장 (02-3145-8022)

제 목 : 케이뱅크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, 금융위 · 금감원은 증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[조선일보 5.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① ""KT,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"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"

② "금융당국은 최근 "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"는 입장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고, 그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 했던 KT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"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· 금감원의 입장

□ **은행 증자** 등 주요 경영사항은 **은행 경영진**이 **주주와 협의**하여 **자율적으로 결정**할 사항입니다.

□ **금융위·금감원**은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**향후 증자** 등과 관련하여 **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